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7.43	↓ 코스닥	699.11
	(-29.98)		(-12.81)
↓ 금리 (한국채 9년)	2.351	↓ 환율 (원·달러)	1423.80
	(-0.048)		(-1.70)



5년 만에 ‘역성장’ 경고등… 정부 “추경 확대 어렵다”

내수부진 지속·소비심리 위축
미국발 관세 충격에 수출 타격
1분기 성장 0%대 현실화 우려
정부, 35조 추경엔 부정적 시각
국제IB, 韓성장률 전망 줄하향

2025년도는 경제성장률 0%대의 해로 기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엄·탄핵 정국에 이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내수 부진 지속에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 타격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역성장(GDP 감소)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워싱턴 발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세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1% 중반대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제 시장 등을 고려

하면 큰 규모의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규모가 왜 12조 원대 편성에 그쳤는지 설명해 달라’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질의에 “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해 재정을 사용·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저조한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35조 원 이상의 추경이 요구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적어도 6·3대선 이전에 확장적 재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비쳤다.

국제투자은행과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 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고,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낮춘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1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비관적인 전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반도체에 대한 (25%)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직접 관세 부과는 2차 둔화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 내년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에서 0.2%p씩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을 시사했다. 피치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국

가와 기업에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으나 이를 하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관세 충격이 발생했다”며 “두 달간 대통령 대행 체제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이 다소 제한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美 재무장관 내주 관세담판

최상목, 방미기간 통상 현안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측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미국 재무장관이 마주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 상호관세 관련 양자 간 협상 차례가 ‘1번 그룹’에 놓인 탓에, 순번을 기다리는 각대륙 국가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게 됐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우리 정부에 최 부총리가 방미 기간 베스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주요 20개국)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미국에서 먼저 요청해 온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베스트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첫 장관급 협상 대상은 일본이다. 워싱턴 시간으로 16일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다. 베스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한국과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JY 訪中성과’ 본격화… 삼성전기, BYD에 전장제품 공급

중 등 글로벌 시장 입지강화 속도
전체 매출 중 비중 39%까지 확대

삼성전기가 지난해 연간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에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를 공급하는 것이 알려지며 전장 부문에서의 글로벌 입지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특히 이번 공급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직접 중국 BYD공장을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그의 방중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BYD에서 MLCC 공급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고 납품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



삼성전기 자율주행차 라이다용 MLCC

/삼성전기

려졌다. 회사 측은 고객사와의 계약 관련 내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공급 규모나 단가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계약이 수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전기는 초소형, 초고용량 MLCC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온·고압·고신뢰성 등 전장 제품 개발에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장 분야 강화 기조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과도 이어진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중국 출장길에 올라 샤오미와 BYD 공장을 방문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왕완푸 BYD 회장 등 핵심 인사들과 만나 전장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기의 전장 사업 확대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도 전장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내비쳤다. 장 사장은 “미래 성장사업인 전장 및 AI·서버 제품은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별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 다변화를 추진해 지속 성장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주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기의 해외 수출 비중 가운데 중국향 매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회사의 지난해 중국향 매출액은 4조 544억원으로 전년(3조3935억원) 대비 19%가량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 회동… 홍 “약자와의 동행 공약 실천할 것” /사진 뉴시스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 무산… 민주당 반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내부 반발에 “이달 내 사퇴”
▲여야 대정부질문 경제 책임 공방… “탄핵이 발목 잡아” “짐만 남기고 떠나”

▲이재명, ‘얼굴 합성’ 딥페이크 유포한 유튜버 경찰 고발키로
▲정부 “민감국가 문제 적극교섭… 美내부절차상 시간 더 필요”

“美 관세, 수출산업 고용부진 우려 ‘위기지역 지정’ 등 만반의 준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회의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6대 청년일자리사업 집중관리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 하에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필요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

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및 재직까지 취업 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제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 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뉴시스

“美 관세정책 대응 고민중 양국 이익증진 협상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HD현대중 방문, 관계자 격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날(15일)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은 바 있어, 이를 연속 경제 현장 행보를 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노진율 사장, 주원호·금석호 부사장 등을 만났다. 애초 한 권한대행의 격려 발언이 예고됐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 앞에 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다산정약용함의 재원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진수된다.

한 권한대행은 권오갑 회장에게 “회사들이 다 이 근처에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 회장은 “30010개 정도 협력사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다 있고, 군함을 만들기 위해 250개 정도 협력사가 조립하는 방식이라 거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협력 카드

의 현장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에 증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한편 전날 한 권한대행은 광주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했다. 이를 연속으로 영·호남을 오가며 산업 현장을 찾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권 민심 읽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서예진 기자 syj@

작년 중국향 매출 4조… 전년비 19% ↑

>> 1면 ‘JY 訪中성과…’서 계속

내수와 수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도 중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전체 매출 8조 9824억원 중 중국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8.2%로 집계됐다. 이듬해에는 전체 매출 10조 2941억원 중 중국 수출 비중은 39%로 확대되며 비중이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 기조 속에서 중국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M LCC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전장용으로 범위를 좁히면 공급 가능한 기업은 더 한정적이라서 삼성전기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긴 어렵다는 업계 내부의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기 측에서는 특정 국가나 시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정책 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샤오미 레이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웨이보 캡처

가 잦은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2025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꽃, 상상 그리고 향기

2025. 4.25~5.11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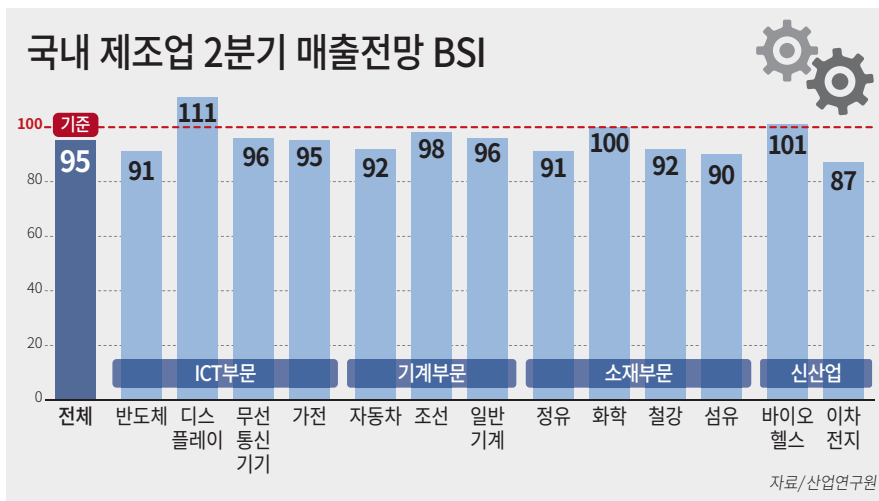
제조업체 40% “관세 대응책 없다”… 2분기 매출 감소 전망

산업연구원, 매출 전망 BSI 95 집계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대응 전략에 ‘구매처 다변화’ 등 응답

국내 제조업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경영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재고 누적’을 꼽았고, 10곳 중 4곳 이상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빠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7~28일 1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100(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지난 1분기(88)보다는 7포인트 올랐으나,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매출을 비롯해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재고(97), 고용(97), 경상 이익(89) 등 다른 항목 2분기 전망 BSI도 모두 직전 분기보다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디스플레이(111), 바이오·헬스(101), 화학(100)만 기준선을 넘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기준점을 하회했다.

특히, 자동차(92), 반도체(91), 무선 통신기기(96), 가전(95), 조선(98) 등 주력 업종을 포함해 정유(91), 철강(92), 섬유(92), 이차전지(87), 일반기계(96)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출 악화 전망이 많았다.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 보합을, 이차전지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77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내수(79), 수출(86)은 전 분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했다. 또 모든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유형별로 ICT(75), 신산업(77)이 3분기 연속 하락세였고, 기계(79), 소재(77) 부문은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경기조사와 함께 실시된 현안 설문(복수응답)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적’(52%),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 가중’(36%) 등이 많이 꼽혔다. 특히,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난’(26%) 응답은 전분기(19%)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체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저하’(35.8%), ‘거래비용 증가 및 이익 감소’(35.4%), ‘투자 감소 및 지연’(31.9%), ‘해외 수출경쟁 구도 변화’(20.3%)라고 답했고, ‘실질적 영향 미미’(19.8%) 응답은 10곳 중 2곳 수준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지연(58%)을 크게 우려했고, 반도체(44%)·디스플레이(49%)·자동차(45%) 등 업체들은 주력품목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음’(42.0%)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가 절감 및 구매처다변화’(31.1%),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24.5%),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13.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대미 협상전략 점검… “조선·에너지 등 경제협력 공고히”

산업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본부장 “국익 확보 최선”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통상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공동의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

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미국측과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며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학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등 1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우리 경제의 모범,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1 | 사업 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2025. 4. 14. 기준)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3 | 신청 및 접수

-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또는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신청·접수기간 : 2025. 4. 14(월) ~ 5. 13(화)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반드시 우편, 이메일 모두 제출시 접수 완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중소기업중앙회(중소)/중견기업연합회(중견)에 제출 (우편)
 - 신청서, 서면평가자료 이메일(mmjs@kbiz.or.kr)로 제출

4 | 확인 절차

01	02	03	04	05	06
공고	접수 및 자격확인	서면 평가	현장평가 및 평판검증	심의 위원회	확정 및 확인서 발급

5 | 명문장수기업 지원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물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6 | 제도 상세안내

- 서면 설명자료 게시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7 | 문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8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02-3275-3127

※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025. 4. 14(월) ~ 4. 30(수)
- 추천방법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주요정책 → 국민추천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에서 기업 추천

* 이후 추천받은 기업에 추천내용을 안내할 예정, 추천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제출(평가방식 동일)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1900만원 시대… 서울은 4421만원

평균 1905만원, 2년새 20% 넘게 ↑
부산, 평당 2208만원 경기도 추월
공사비 인상에 정비사업 증액 협상
“고분양가 우려, 추가 인상 전망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평)당 1900만원 시대가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공사비 상승세에 분양가 2000만원 돌파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이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5만원이다. 분양가는 공사비 급등으로 지난 2023년 2월 1560만원에서 2년 만에 20% 넘게 뛰었다.

전국 분양가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19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별 물량에 따라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1900만원은 기정사실화됐다. 올해 들어 1, 2월 연속 1900만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 분양가는 2월 기준 4421만원으로 1년 만에 17%나 올랐다.

부산의 분양가도 다른 지역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경기도도 앞질렀다. 2월 기준 부산 분양가는 2208만원으로 경기 분양가 2163만원을 웃돈다. 부산 분양가는 2023년 5월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꾸준히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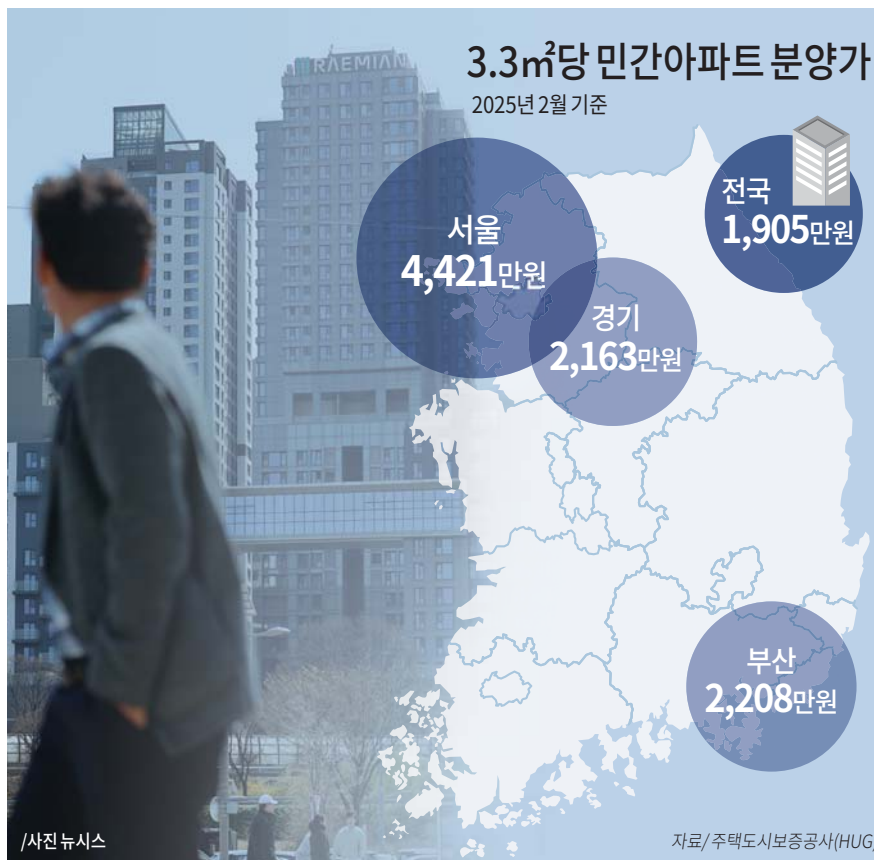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른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은 매년 이전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많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분양가가 저렴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조합과 갈등을 겪더라도 공사비를 올리겠다는 분위기다. 오른 공사비는 분양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공사비로 인한 갈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증액에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증액 규모는 2566억원 규모다.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역시 GS건설과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다. 기존 8776억원이던 공사비는 1조 297억원으로 늘었다. 부산 부산진구 초진4구역은 지난해 기준 시공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시공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4으로 전월 대비 0.0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6% 올랐다. 최근 환율 상승세도 가팔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급등은 건설시장에 수입물가를 자극해 자재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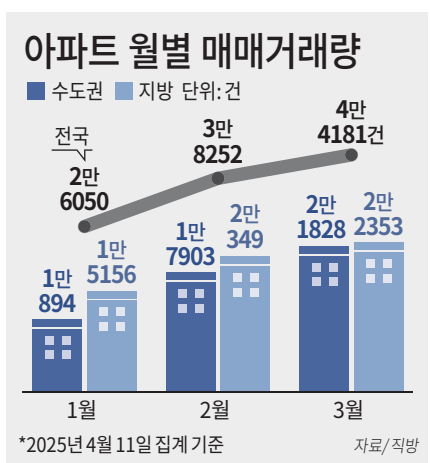


3월 아파트 거래량 4.4만건… 서울 2.3배, 세종 2.6배 급증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거래심리 회복
서울 양천·세종 집값 기대감에 ‘들썩’
이달 이후 숨고르기, 2분기 흐름 주목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의외 급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만4181건으로 집계됐다. 1월(2만6050건)과 비교하면 약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은 11조 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1828건,

거래총액은 17조1997억원이었다. 특히 서울은 3월 한 달간 7369건이 거래되며 1월(3192건) 대비 2.3배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9조49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89건),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양천구는 1월 100건에서 3월 4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

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거래 가능 구간 확대와 함께 급리 인하 기대가 거래 심리를 전환시켰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잠실, 동작구 상도·사당동, 마포구 아현·여의동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두드러졌다. 3월 거래량은 687건으로 1월(266건) 대비 2.6배, 거래총액은 3510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논의와 가격 조정 이후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비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만2353건으로 1월 대비 47% 증가했고, 거래총액은 6조원으로 50% 확대됐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경남(2814건), 부산(2382건), 충남(2130건) 순이었고, 거래금액은 부산(9461억원), 경남(6686억원), 대구(6263억원) 순이었다.

김 랩장은 “1분기 수요가 움직이긴 했지만 4월 들어 숨고르기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며 “6월 대선을 앞둔 정책 불확실성,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2분기 흐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자산가들 ‘분산투자’ 선호… 영리치 위험 감수 늘었다

하나금융연구소, ‘웰스리포트 발간’
자산가들 부동산보다 금융 선호 ↑
2040 부자, 투자 적극·위험 감수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보고, 안전자산 중점의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영리치’와 50대 이상 ‘올드리치’의 투자 성향이 갈렸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2025 대한민국 웰스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크(PB) 19명이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3010명이 참여했으며, 자산규모 별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 884명, 금융자산 1억~10억의 대중부유층 1545명, 금융자산 1억 이하의 일반대중 581명이 참여했다.

부자들은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자 가운데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은 75%에 달했고, 부동산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도 64%에 달했다.

자산 운용 계획으로는 예금(40.4%, 중복 답변 가능), 금(32.2%), 채권(32.0%) 등 저위험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펀드(23.9%)나 주식(29.2%)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지수 추종 상품인 ETF(29.8%)의 선택률도 높아 분산 투자에 대한 의향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수 의향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44%로 하락했지만, 매도 의향은 31%에서 34%로 늘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고급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고, 여유 자금은 부동산 대신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올 한해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40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16.4%)의 매입 의향이 대형 아파트(8.5%), 오피스텔(4.3%), 상가(4.3%), 토지(4.1%) 등 다른 부동산 유

형보다 높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투자의향이 높은 상품은 그 선호 정도가 매우 유사하고, 안정형·저위험 투자상품들로 고루 분포됐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생각으로 읽혀진다”고 설명했다.

영리치(40대 이하 부자)와 올드리치(50대 이상 부자)의 투자 성향 차이도 두드러졌다. 영리치의 투자자산 비중이 2022년 34.9%에서 2024년 41.7%까지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올드리치의 투자자산 비중은 38.1%에서 38%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

영리치는 투자 정보 확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47%)과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정보를 얻는다(7%)는 응답도 올드리치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자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답변도 21%에 달했다. 해당 답변이 4.9%에 그친 올드리치보다 위험 감수 성향이 컸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 국내선 ‘주춤’

국내선 고점 부담에 투자심리 위축
ETF 등 해외 시세 추종 상품 주목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200달러를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금 가격은 주춤하고 있다. 앞서 국내 금값이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됐던 만큼,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국내 금 가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김치 프리미엄(과도한 수요로 국내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도 해소됐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6월 인도분 금 선물의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240.40달러(약 467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사상 최초로 32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320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3월 초 대비 가격 상승률은 11.6%에 달했다.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선호가 빠르게 늘어서다.

앞서 트럼프는 이달 초 57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10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 부과 후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고강도 관세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다음날인 11일 84%로 예정했던 대(對)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이어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섰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금 가격의 상승은 더디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국내 금 현물 종가는 8당 14만8250원을 기록했다. 온스당 환산 가격은 461만원으로, 같은 날 국제 금 시세 대비 소폭 낮다. 3월 초 대비 가격 상승률도 3.9%에 그쳤다.

/안승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12조 규모 편성했지만… ‘찜빔 추경’ 지적에 신속처리 미지수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등 초점 당초 10조보다 2조 증액한 규모

민주당 “최소 15~20조 늘려야” 국민의힘 “경제위기 타개엔 부족”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 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 α) ▲민생 지원(3조원+ 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찜빔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동안 모니터에 명태균 씨의 사진과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뉴스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날 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찜빔 추경’이라고 비판하

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찜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빅3’, 공명선거 다짐… “내란종식 위해 승리해야”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흠결보다 역량·정책 강점 알리길” ‘어대명’ 기조에 경선희행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당 내 경선 규칙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정당당당한 경쟁을 약속했다. 다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흥행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정당한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을 약속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름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주시길 바란다”며 “흠결을 들춰내기보다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써주시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합된 경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세 주자 모두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돼든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 수괴를 꺼안고 사실상 내란수괴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저 사람과 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

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라며 “그 경험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후보들이 출마함에 따라 ‘어대명(여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경선이 치러져 자칫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초 100%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양한 주자의 의견을 선관위가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선 불출마’ 오세훈에 쏟아지는 러브콜… 이틀간 다섯번 회동

뭣, 대선 주자들에 신간·정책 내걸어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틀 동안 흥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회동을 가지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15일) 저녁 흥준표 전 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을 차례로 만나 인기를 실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부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료를 내걸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고, 서울런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플랫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

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받아든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흥 전 시장은 “우리가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호평했다.

나 의원은 “디딤돌 소득은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돌아가서 자세하

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아가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지총’을 흡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4명을 남기는 1차 경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4선 서울시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경선 주자들도 저마다 오 시장과 공유하는 경험을 앞세우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했고 오 시장과 저랑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서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이 저에게 한 첫 말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라며 “(오 시장이) 중도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만난 주자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후 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나 의원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으나 안 의원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No.1답게 새로움을 담다 김치의 또 다른 이름



브랜드파워 김치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01년~2024년)
조사기간 2023.10~2024.01,
전국 만 18~64세 남녀 12,500명 대상



한국산업의구매안심지수 김치부문 1위
[사]한국마케팅협회, [주]소비자평가 (2024년)
조사기간 2023.02.01~2023.02.15,
전국 남녀 3000명 대상



The NYF K-NBA 김치부문 1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대상 (2024년)
조사기간 2023.12~2024.01,
전국 만 16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



iF Design Award 2024 2관왕
Brand Identity, Commercial Exhibition 부문
종가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

‘흑자전환’ 토스뱅크… 고객경험 무기로 ‘글로벌 은행’ 도약

작년 3년만에 457억원 흑자전환
이은미 대표 “성장 비결은 소통”
수수료 면제 등 파격서비스 유지

중장년·시니어 전담 조직 신설
中企 대상 금융서비스도 확대

“이전에는 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본과 영업력이 필수였다. 디지털화 되는 시기, 지금의 은행은 고객경험(CX·Customer eXperience)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다.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으로 또 해외 고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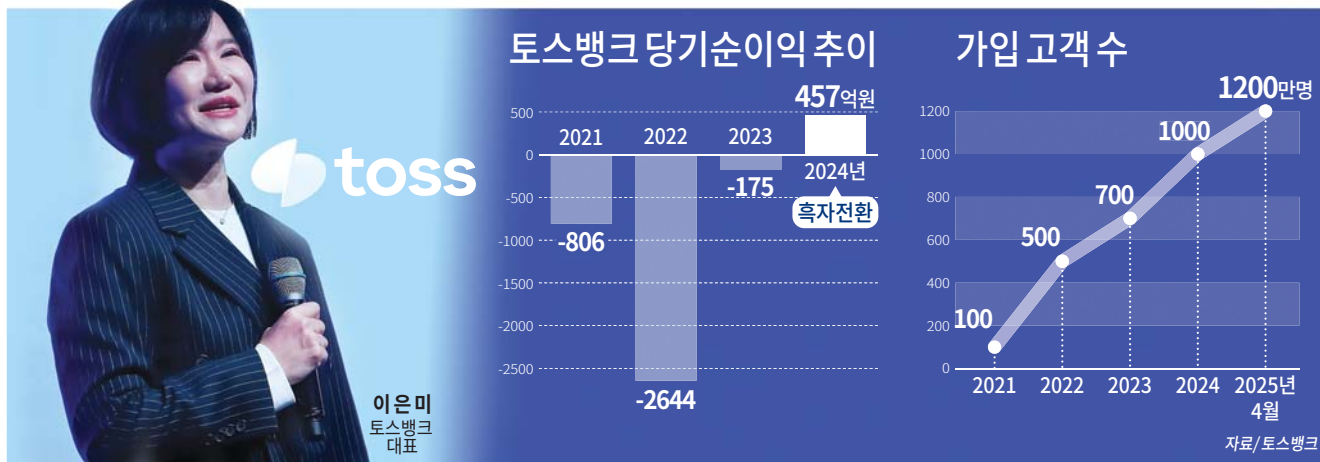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글로벌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토스뱅크는 배당주 아닌 ‘성장주’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2023년 3분기 처음 흑자로 전환한 뒤 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 연간 457억원의 흑자를 냈다. 출범한 지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꼽았다.

그는 “좋은 혜택은 먼저 알리고, 불리한 것도 숨기지 않으려 했다”며 “대출금리가 내리는 것뿐 아니라 오르는 것까지 알렸고, 위급할 것에 대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도 한번에 들도록 하는 등 고객이 필요로 하



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재 토스뱅크의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6%)와 30대(22%)가 48%를 차지하고, 40대(23%)와 50대 이상(25%)이 48%를 차지한다.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이용 고객 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토스뱅크가 송금 수수료 등을 받지 않아 비이자 부문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자동현금지급기(ATM) 수수료의 경우 700달러 이상 5회 이상 출금 시 수수료를 받는 등 오남용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일정 한도 아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 모바일 송금뿐 아니라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타 은행 ATM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출금할 경우에도 무료다.

이로 인해 지난해 토스뱅크의 수

료 비용은 1760억원으로 수수료 수익(1203억 원)을 뛰어넘었다. 수수료 부문 적자는 2023년 508억원에서 2024년 557억원으로 확대됐다.

과도한 비용까지 수수료를 면제한 뒤 비용부담에 추후 모든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기 보다, 이용 정도가 크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 뒤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다수에 면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 “新 금융모델 만들 것”

이날 토스뱅크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 고객으로는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해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제2 베이비붐 세대(1968~1972년생)가 퇴직하면서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시니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는데, 제2 베이비붐 세대, 즉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나 송금 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은 아무래도 개인금융과 성격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로 삼고 내놓을 계획이다. 판박이 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한다. 동남아 등 신흥국과 더불어 선진국 시장도 대상이다.

이 대표는 “많은 은행들이 진출하고 있는 신흥시장은 금융 자체가 필요한 곳이라면 선진국 시장은 고객경험(이용하기 편리한 금융서비스)이 필요한 곳”이라며 “미국, 런던,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고객경험은 선진화 돼있지 않다.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NH농협손해보험 전남 서영암농협 5년 연속 ‘연도대상’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4,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수상자와 임직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진행된 농축협 사무소 부문 시상식에는 전국 83개 사무소(중복 수상 포함)가 수상했다. 전남 서영암농협이 5년 연속 사무소 종합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영암농협을 포함해 광주 서광주농협 등 총 25개 농축협이 종합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해 “같은 배를 타고 풍랑을 헤쳐 나간다”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메리츠화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부터 가축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의 판매 및 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의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말, 꿀벌 등이다.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KB라이프 역모기지종신보험(무) 누적 수입 500억 돌파

KB라이프는 지난 2022년 업계 최초로 출시한 ‘KB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무)’이 꾸준한 시장 반응 속에서 누적 수입보험료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고객의 은퇴 후 매월 생활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동화형 구조의 상품으로 은퇴 금융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존의 약관 대출이나 연금전환특약과 달리 보험가입 시점부터 유동화를 고려해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1년새 4조 감소

中企 대출도 연 10조 가까이 ↓ 자영업자 대출 한파 이어질 듯

지난해 저축은행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잔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6403억원이다. 전년 동기(19조7751억원) 대비 4조1348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로 소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 변동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급전창구’가 쪼그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뮤온)이 줄인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1조9108억원이다. 전체 감소잔액의 46.2%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애뮤온저축은행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887억원을 취급했다. 연간 40.1%(5953억원) 감소했다. 이어 ▲SBI저축은행(-5747억원) ▲OK저축은행(-4928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2180억원) ▲웰컴저축은행(-301억원) 순이다.

중소기업 대출액도 연간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46조3810억원을 취급하면서 1년새 9조6457억원이 줄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81%다. 1년새 4.7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48%p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은 것과 대비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규모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개인사업자와 중기대출은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잔액은 9조4920억원으로 전년(6조1598억원) 대비 54.1% 늘었다. 액수로 보면 3조3322억원 증가했다. 중기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총 13조7805억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졌다는 점이다. 수입과 지출, 신용이력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저축은행 또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총 6만3187건이다. 연간 96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피해신고는 1646건 늘어난 1만5397건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LH, 3기 신도시에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는 줄이고, 화재 예방은 더할 수 있는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기정화 도시숲은 나뭇잎, 가지, 줄기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대기 정화를 목적으로 도시생활권

에 조성하는 숲을 뜻한다. LH는 그간 전국에 총 75만㎡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연간 약 1141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거둬 왔다.

LH는 올해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활용해 약 18만 그루, 총 225만㎡ 규모의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

다. 공원·녹지 식재지 40% 이상의 면적에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은 큰 나무를 군락으로 심고, 자귀나무, 참나무 등 미세먼지 흡착·흡수 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도시숲 공기정화 효과를 25% 이상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3기신도시 공기정화 도시숲은 연간 경유차 6000대가 내뿜는 양인 1만kg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2500톤 이

상 흡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림 화재 여건을 고려해 자연적인 화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불에 약한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종의 비중을 줄이고, 단풍나무, 굴참나무 등 산림청이 권고하는 내화수종 36종을 혼합 식재한다.

이를 통해 3기신도시 내 내화수종의 비율을 약 27%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HBM 인력 재배치 차세대 제품개발 역량 집중

파운드리 부문, 직무전환 기회 제공
내부 혼란… 사업부 간 갈등 우려도
업계 “HBM4 주도권 위한 선택”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공략을 위해 내부 인력 재배치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설비, 제조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잡포스팅’을 공지했다. 잡포스팅은 직원들에게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 ‘프리에이전트·자유계약(FA)’ 제도의 일종이다.

이번 인력 모집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메모리제조기술센터는 ‘차세대 HBM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반도체연구소는 ‘HBM 및 패키징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은 ‘HBM 및 신제품 계측·분석·설비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인력 충원을 공지했다.

애초 삼성전자는 일정 인원을 선별해 전환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세대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입할 정

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파운드리 인력 일부가 메모리제조기술센터로 전환된 바 있어 HBM4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거센 추격이 있다. 현재 HBM 시장의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HBM) 제품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달리, 삼성전자는 발열 문제 등으로 HBM3E 품질 검증(켈 테스트)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앞선 데 달진 격으로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석결과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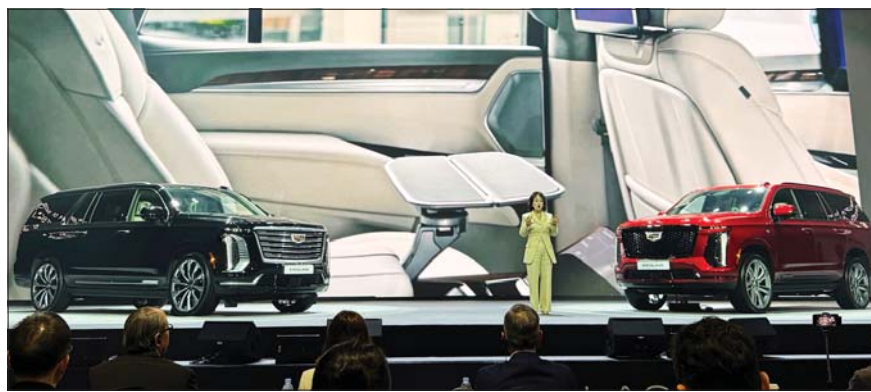
이에 삼성전자는 HBM4시장에서만 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HBM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크게 늘려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HBM4는 하반기 내 차질없이 개발해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선택을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HBM4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곧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HBM3E에서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HBM4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경영진은 파운드리 가동률 저하로 생긴 여유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서는 핵심 인재 유출로 기술 집중도가 저하해 TSMC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메모리 사업부로 일부 인력이 전환됐을 당시에도 파운드리 부문에 잔류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전언도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파운드리 인력이 연쇄적으로 메모리 부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되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며 “메모리 사업부와 임금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이동이 계속되면 사업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16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책임자가 캐딜락 대표 하는 럭셔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더 뉴 에스컬레이드’ 국내 출시

캐딜락 4년만에 부분변경 모델 선보여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

“에스컬레이드는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로 강력한 존재감으로 대신할 수 있다.”(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 책임자)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성공’의 상징으로 주목 받아온 캐딜락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가 4년 만에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캐딜락은 16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5세대 에스컬레이드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에스컬레이드’의 국내 공식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명옥 CMO는 “에스컬레이드는 성공에 이르는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 모델은 없다”며 “출시 당일부터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진행하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럭셔리 풀사이즈 SUV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에스컬레이드는 이번 모델을 통해 디자인과 기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화를 이뤘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부분변경을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했다. 전면부에는 배경 조명이 적용된 ‘일루미네이티드 프론트 크레스트’와 수직형 LED 헤드램프가, 후면에는 길이 약 1m의 블레이드형 테일램프가 새롭게 적용됐다.

이는 캐딜락 전기차 라인업인 리릭(LYRIQ)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한 것으로, 야간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돋보인다. 외장 색상은 기존 블랙 레이븐,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외에 갤럭시 그레이 메탈릭, 아젠트 실버 메탈릭, 레디언트 레드 틴트코트 등 총 5가지로 확대됐다.

또 ‘움직이는 VIP 라운지’로 불릴 만큼 탑승자를 위한 배려가 세심하게 녹아 있다. 실내에는 VIP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감성을 더했다. 2열 이그제큐티브 시트 패키지와 파워 오픈·클로즈도어 기능을 기본 적용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은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도 확보했다.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실린더 비활성화를 통해 연료 효율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네시스, 전동화 오프로더 SUV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공개

우스 뉴욕에서 전동화 오프로더 SUV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테드 멘지스 테제네시스 북미법인 COO(왼쪽부터), 재키 익스 제네시스 브랜드 파트너,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부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네시스

HD현대미포 액화이산화탄소선 진수

세계 최대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이 울산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HD현대 조선 계열사인 HD현대미포는 최근 울산 본사에서 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진수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HD현대미포에서 진수된 선박은 2만2000㎥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선박은 ‘캐피탈 가스십 매니지먼트’사의 감리 하에 마무리 의장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말 인도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항균 등 기능성 소재 사업 속도

차이나플러스서 ‘퓨로텍’ 선보여

LG전자가 항균 기능성 소재 ‘LG 퓨로텍(PuroTec)’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간거래(B2B) 시장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15일 개막한 ‘차이나플러스 2025’에 LG 퓨로텍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LG 퓨로텍은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를 내는 기능성 소재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항균 성능을

낼 수 있어 경제적이며 플라스틱, 섬유 등 다른 소재에 섞어 사용할 수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다.

LG전자는 전시장 내 체험 공간과 별도 미팅룸을 마련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퓨로텍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가능 사례를 공유했다.

LG전자는 오는 10월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에 열리는 ‘K-쇼’에도 참가해 유럽, 북미 등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한화큐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제품 등 전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제품을 선보인다.

한화큐셀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

력 제품인 상업용 모듈과 인버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컨설팅, 영농형태양광, 방음벽태양광 등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설치 환경을 고려한 ▲영농형태양광 ▲방음벽태양광 제품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로써 실제 설치된 모습을 본따 전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IG넥스원, AI·무인 등 보안기술 고도화

시큐리티플랫폼 기술개발 맞손

LIG넥스원과 보안전문기업 시큐리티플랫폼이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보안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시큐리티플랫폼과 ‘국방 AI 및 무인체계 보안 기술 적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

을 통해 무인수상정, 항공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를 시작으로 방산기술 탈취 원천차단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미래전을 주도할 AI 및 무인체계 분야를 중심으로 ▲보안 기술의 군 통신장비 적용 방안 공동 연구 ▲보안 기술 교류 ▲연구 결과물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승용 기자

BYD, ‘가성비 괴물’ 아토3 출격… 韓 전기차 가격전쟁 ‘점화’

사전계약 한달 만에 2000대 돌파
유럽 5800만원, 韓 2000만원대
LFP 배터리 장착해 안전성 확보
현대·기아보다 저렴한 전기 SUV
“동급 성능에 가격 절반” 평가도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국내 첫 출시 모델 ‘아토3(ATTO 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가격은 물론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얼마나 선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YD가 한국 시장에 처음 내놓은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아토3가 지난 14일부터 고객 출고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아토3는 BYD의 기술이 집약된 블레이드 배터리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Platform 3.0을 적용해 탁월한 안전성, 공간 활용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 1주일 만에 사전계약 1000대, 한 달 만에 2000대를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조인철 BYD KOREA 승용부문 대표가 차량들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몸에 받았다.

아토3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다. 아토3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아토3 3150만원, 아토3 플러스 333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금(145만원)까지 더하면 2000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경쟁 소형 전기차인 기아 니로 EV(4200만원), 현대 코나EV(3500만

원), 현대 캐스퍼EV(3100만원)가 3000만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아토3는 BYD가 자체 제조하는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이름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저렴한 가격과 긴 배터리 수명이 장점이며, 350도 이상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을 만큼 안전성이 우수하다. 니

로EV와 코나EV의 경우 NCM배터리가 탑재되어 순간적인 출력이 강한지만 비싼 배터리 가격과 발화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와 출력의 경우 아토3는 321km, 150kW(204마력)로 니로EV 404km 50kW(204마력), 코나EV 311km 99kW(135마력)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니로EV와 가격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나지만 주행

거리가 80km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차량 크기도 동급 국산차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토3는 지난 2022년 출시 이후 가성비로 호평받으면서 중국 외에도 일본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72개국에서 100만대 이상 팔렸다. 유럽 판매 가격은 4만유로(약 5800만원), 일본 판매 가격이 440만엔(약 41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판매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시장에서는 아토3가 본격적으로 출고를 시작한 만큼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아토3가 국내 동급 경쟁모델과 가격 차이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아토3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자동차 성능은 국내 전기차와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며 “아토3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아토3를 시작으로 후속모델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오영주 “韓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총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美서 글로벌펀드 결성·MOU 체결
“매년 1조 펀드로 해외 투자 유치”
UKF 연계, 현지창업 네트워크 활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 ▲UKF-한국벤처투자업무협약(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 잇따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한인창업자연합(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성한 3개 글로벌펀드 규모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결성식 및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총 2억 달러(한화 약 2854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패턴 매니지먼트(Patron Management), 써드프라임 캐피탈(Third Prime Capital),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다.

브라이언 조 패턴 매니지먼트 대표

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월 기준 총 73개 펀드, 약 12조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3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UKF와 한국벤처투자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약 1500명의 회원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휴넷CEO, ‘대한민국 10대 혁신기업’ 선정

한화에어로·현대차그룹 등 포함
코스피 등 2273곳 분석해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은 김동관 부회장이 기술적 통찰력, 조직 통합 능력, 시장 전략을 실행력으로 융합한 결과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은 정의선 회장이 기술, 조직, 시장을 심층 통합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박진영 COO가 기술 리더십, 조직 유연성, 시장 전략을 실행력으로 융합한 결과다.”

휴넷이 경영자 씽크탱크 서비스 ‘휴넷CEO’를 통해 16일 발간한 ‘CEO 리

포트’ 4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휴넷리더십센터와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리포트는 ‘대한민국 혁신기업 Top 10-혁신 패권 시대, 새로 쓰는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혁신 리더십의 본질과 방향성을 집중 조명했다.

리포트는 KOSPI, KOSDAQ, KONEX에 상장한 227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성 지수 모델을 활용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했다.

10개 기업에는 이들 외에도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실리콘트 ▲제룡전기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원자력용 강재로 해외시장 공략

美 ASME서 QSC 품질인증 획득

현대제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자력소재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원자력용 강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최초로 미국 기계기술자협회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원자력소재 공급사 품질시스템 인증인 QSC(Quality System Certificate for Nuclear Material Organization)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ASME QSC’는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의 품질보증체계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인증제도로 ASME는 공급사의 소재 및 품질관리시스템이 원자력 산업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제철의 철근·형강 및 후판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 수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원전(原電) 건설 및 유지보수용

강재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제철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대제철은 이번 인증과 함께 그동안 축적해온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6년도부터 국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주요 원전 건설에 제품을 공급해왔고 2011년에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공급 실적도 확보했다.

/이승용 기자

상해모터쇼서 사운드 데모카 등 공개

현대모비스가 2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오토상하이 2025’에서 현지 시장에 특화된 신기술을 선보인다. 지난해 북경모터쇼에 이어 중국 양대 모터쇼로 꼽히는 상해모터쇼에도 부스를 마련해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려 글로벌 수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상하이모터쇼에서 90평 규모의 부스를 차린다고 16일 밝혔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 전시를 확대해 올해 2억 달러(2860억원)의 현지 수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스는 현지 완성차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특화 신기술 2종과 선행 제품들을 중심으로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상하이 연구소는 부품 설계와 함께 차세대 플랫폼 등 선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엔타이 연구소는 현지에서 출시하는 신규 차종 개발과 양산 업무를 맡고 있다.

현지 특화 기술들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와 사운드 데모카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70인치 규모의 고해상도 가상 이미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띄워 주행 정보를 표시한다. 뛰어난 밝기와 명암비로 햇빛 아래나 선글라스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EV6 기반으로 제작한 사운드 데모카는 47개의 스피커를 장착해 극장 수준의 사운드를 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

다육이
숲으로의
여행



최은경 작가
기획 초대전

2025.4.16 Wed - 4.29 Tue **갤러리아람**

갤러리아람 서울시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관람시간 11:00-19:00 휴관일 2025년 4월 21일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람비** **ARAMBI**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KT “2026년까지 5000억 투자… 미디어 콘텐츠에 AI 접목”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

AI 플랫폼 고도화 등 전략 구성
MS 협업, AI 에이전트 도입 예정
대화형 검색으로 콘텐츠 탐색
홈쇼핑 등 외부 파트너에도 활용

FAST·숏폼 등 신사업 모델 추진
IPTV 구조 유연화… 변화 대응

KT가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3대 핵심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IPTV 플랫폼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전방위에 걸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KT는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안다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플랫폼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



KT 미디어부문장 김채희 전무가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KT 미디어 뉴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

해 KT는 최근 미디어 콘텐츠 AX(AI 전환) 전문 조직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했다.

KT의 미디어 전략은 AI 플랫폼 고도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모델 혁신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KT는지니TV에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한 미디어 특화 AI 에이전트

를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검색으로 콘텐츠를 더욱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ENA 채널의 군대 배경 코믹 드라마”라는 식의 모호한 요청에도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을 바로 찾아주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는 홈쇼핑 등 외부 파트너와의 상생에도 활용된다. ‘지니TV 쇼핑 인사이트’에 AI를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트렌드 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KT는 지니TV의 AI 플랫폼을 그룹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KT HCN을 시작으로 IP 방식의 플랫폼을 도입해, 약 1400만 그룹 미디어 서비스 고객이 한층 진화된 AI 기반 TV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KT는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KT 미디어 부문, KT 스튜디오지니, KT ENA 등의 그룹 역량을 결집해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 기반 흥행 예측 심사관, AI 보조 작가·스토리보드, AI 음악·CG·편집, AI 자막·숏폼·PPL 등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제작 생산성을 높인다.

KT스튜디오지니는 ‘AI 제작 명가, 넥스트 IP 스튜디오’를 비전으로 채널·포맷·글로벌 3대 확장 전략을 통해 지식

재산권(IP) 가치 극대화에 나선다.

KT는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책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채널(FAST)과 숏폼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적극 추진한다. 올 상반기 FAST 채널을 지니TV에 시범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한다. KT스튜디오지니가 보유한 IP 역시 FAST 채널을 통해 해외 시장에 소개될 예정이다.

숏폼 콘텐츠 분야도 본격 강화한다. KT는KT스튜디오지니를숏폼 전문 스튜디오로 포지셔닝하고, AI 기반 제작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현재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약 20편의 공동 제작을 협의하고 있다.

KT는 이와 함께 실시간 채널·VOD 중심의 IPTV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 변화하는 시청자 행태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유료방송 틀을 넘어서는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경찰청, 총 2610건 악성앱 피해 막아

4개월간 약 1070억 피해 예방
AI 기반 분석 통해 문자 차단
경찰관, 피해자 직접 찾아 조치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력해 4개월간 2000여건의 악성앱을 발견, 차단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10건의 악성앱 설치 의심고객을 확인해 경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출동해 즉시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약 4개월 간 약 10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악성앱 차단 협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SK텔레콤은 1차로 보이스피싱 악성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I 모델 기반 분석을 통해 악성앱 유포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악성 도메인과 IP를 추적해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경찰청의 영장 집

행을 통해 AI 모델 기반의 분석을 통한 악성앱 설치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하면, 경찰청은 출동 경찰관이 직접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성앱을 직접 삭제, 조치해 피해를 줄였다.

SKT와 경찰청의 이 같은 협력은 악성앱 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2차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했다는 것 의미가 있다.

/김서현 기자

삼성SDS, 제조산업 디지털 혁신전략 소개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 개최
실제 도입사례, 관련 노하우 공유

삼성SDS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업자원관리(ERP), 제조 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운영기술(OT) 보안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SDS는 16일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삼성SDS는 ▲제조업종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제조 ERP 혁신 방안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OT 보안 전략 ▲5G 특화망 기반 제조 현장 혁신 ▲AI 기반 디지털 구매 혁신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기조 연설을 맡은 삼성SDS 김정욱 컨설팅팀장(상무)은 삼성SDS가 보유한 제조 산업의 핵심 시스템과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SDS가 16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산업 데이(Industry Day)’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SDS

이어서 진행된 ‘AI 에이전트: 하이퍼 오토메이션 핵심 노트’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요소와 실제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또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사물인터넷(IoT)·5G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제조 현장의 보안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시간 가동되는 IoT 센서, 로봇 등 생산 설비와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현대차·기아 시각장애인 버스탑승 특화 단말 실증사업

LG유플러스가 현대자동차·기아 주관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특화 단말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기아의 2023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이동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지(Day-Easy) 기술개발’ 과제를 LG유플러스가 수주해 진행했다.

LG유플러스와 현대자동차·기아는 시각장애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탑승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BIS(버스정보시스템)를연계한 시각장애인 특화 앱에 기반해 동작한다.

이 솔루션에서 시각장애인은 탑승할 버스의 노선을 앱을 통해 승차 예약 후, 다가오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음성 안내와 동시에 힌지광이의 진동으로 안내 받는다. 미세한 진동의 세기를 통해 탑승하려는 버스의 위치와 정차 순서, 상대적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조종연 메타빌드 대표(왼쪽 일곱번째)와 장광수 안양대 총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열린 안양대학교-메타빌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타빌드

메타빌드-안양대, AI·연계미들웨어 인재양성

ACx 연계미들웨어 라몬 평생교육원 협력 통해 세미나·현장실습 등 추진

메타빌드는 지난 15일 메타빌드 제2 사옥 ‘ACx(인공지능·클라우드 전환) 연계미들웨어 라몬 평생 교육원’에서 안양대학교와 AI·연계미들웨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골자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가 ‘ACx 연계미들웨어 라몬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연계미들웨어,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등소프트웨어(SW) 기술인재 양성 상호 협력

▲SW·AI 관련 세미나·현장 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SW·AI 프로젝트 교과목 개설·운영 등을 추진한다.

메타빌드는 기존 4000여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자사가 보유한 서비스·데이터·애플리케이션 연계미들웨어와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 라몬을 융합해 국내외 최초로 차세대 ‘AI 연계 플랫폼’을 개발한 AI·연계미들웨어 전문 기업이다. 안양대는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이끌어 갈 디지털 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SW 중심 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이다. /김현정 기자

SK C&C, NH농협 상품 접근성·편의성 개선

디지털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사업 완료

SK C&C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공동 추진한 ‘NH농협 디지털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K C&C는 약 21개월 동안 NH농협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 중심 슈퍼앱 구축 ▲대고객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환경·경험(UI·UX) 구현 ▲클라

우드 기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금융 상품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NH콕뱅크’와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가 슈퍼앱으로 고도화되며, 1300만 NH농협 이용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풀뱅크’ 서비스가 완성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현금배당 30조… 전년비 10.5% ↑ 코스피 상장사 주주환원 기조 강화

KRX, 작년 807곳 중 565곳 실시
시가배당률 최근 5년 중 최고치
보통주 3.05%, 우선주 3.70% 기록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사의 현금 배당이 대폭 확대되며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총액이 30조원을 넘겼으며, 시가배당률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807개사 중 70%에 해당하는 565개사가 현금배당을 실시해 총 30조345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10.5%(2조8926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당 평균 배당금은 492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상승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3.05%, 우선주 3.70%를 기록하며 모두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통주의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수익률(3.17%)과의 격

차를 0.12%포인트로 좁혔다. 업종별 시가배당률은 금융업(3.80%)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업(3.61%), 통신업(3.49%)이 뒤를 이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주가는 평균 5.09% 하락했으나, 코스피 전체 수익률(-9.63%)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05개사 중 95.4%에 해당하는 100개사가 배당을 실시했고, 총 18조원을 배당해 전체 배당금의 59.2%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3.15%, 우선주 3.99%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40.95%로 전체 현금 배당 법인의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거래소는 “고금리, 환율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다수의 상장사가 기업이익의 주주 환원 및 안정적인 배당 정책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전체 배당법인에 비해 더 높은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배당금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중 612개사가 총 2조313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 기업 수는 전년 대비 5개사 증가했으며, 배당금 총액도 2603억원(12.7%)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코스닥 상장사도 402개사로 사상 최대다.

평균 시가배당률은 전년 대비 0.56%포인트 상승한 2.529%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한 기업은 전체의 28.8%(176개사)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5.45%에 이르렀다.

배당 실시 기업의 평균 주가는 -13.0%로, 코스닥지수 수익률(-21.7%)보다는 선방했다. 특히 5년 연속 배당을 지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은 27.6%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1.3%)을 26.3%포인트 초과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세 비껴가고 실적은 날개 ‘방산株 순항’

한화에어로, 전일비 2.29%↑ 78.8만원
코스피 하락에도 주요방산주 상승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 움직임에도 방산주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럽·중동 중심의 수출 구조에 더해, 미국의 국방비 확대 기조가 실적과 주가, 투자심리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중가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20% 오른 7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장중 80만4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29.98포인트(-1.21%) 하락했지만 LG넥스원(+7.06%), 한국항공우주(+2.31%), 현대로템(+0.76%) 등 주요 방산주들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낮고, 유럽·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어 미국발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이 재개되더라도 방산업체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실적 기대감도 방산기업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3% 늘어난 47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1866억원)과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도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 투자 시장에서도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 ETF’는 순자산 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연초 이후 수익률은 83.56%,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1.42%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미국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도 방산주의 중장기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조만간 1조 달러 실현”이라는 입장을 내놴다. 국방비 증액은 동맹국의 방위비 확대와도 맞물리며 국내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실적과 수출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신용평가사들도 방산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천궁-II와 L-SAM 다기능레이다 수출 확대, ICT 부문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등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조선소 인수와 유상증자 등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순차입금비용·차입금의존도 등 주요 재무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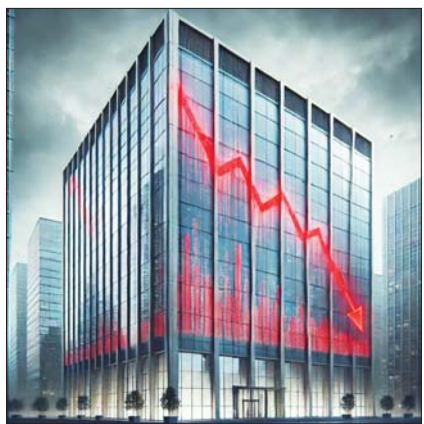
코스닥 밸류업 시행 1년… 참여율 2% 그쳐

KRX, 총 1791곳 중 37곳 참여
“밸류업, 손해 감수해야 하는데
보완 세제 없어 나서기 어려워”

밸류업 정책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상장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 정부 정책의 유인과 실행 여건이 모두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공시에 참여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7개사로 전체 코스닥 상장사 1791개사의 2.0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참여가 부진한 배경에는 제도 자체의 한계와 기업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자본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주주 환원 방안을 수립해 공시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시장 특성상 IR 전담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아, 공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밸류업을 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할 세제나 정책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투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유인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소각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결국 돈을 버는 기업이 많아져야 밸류업도 가능

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대응 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203곳의 합산 연결 영업이익은 9조6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고, 순이익은 3조4817억원으로 13.45% 줄었다. 상장사 5개사 중 2개사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자체가 더 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밸류업 정책의 출범 계기가 됐던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약 40%였으나, 올해 3월에는 53%까지 늘어나면서 저평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정부는 당초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빠진 상황에서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투자, 마이스터 클럽 제도 등 신설

시니어 우수PB·지점장 대상

신한투자증권은 시니어 우수 프라이빗뱅크(PB) 및 지점장을 대상으로 ‘마이스터 클럽(Meister Club)’,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Meister Club’은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정이 되면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을 부여한다. 임금피크제 전환 대상인 시니어 PB 중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역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에

‘Meister Club’ 멤버는 전체 시니어 PB 25명 중 6명이 선정됐다. 연말 실적 업적평가대회에서 성과 상위 5% 이내 직원에게 수여하는 플래티넘 수상인원 3명이 포함됐다.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는 오랜 기간 쌓아온 지점 운영 노하우와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시니어 지점장을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카카오뱅크, 전략적 업무협약

비대면 자산관리 환경 확장 계획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자산관리 환경을 확장하고, 고객 중심의 투자경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키움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 ▲계좌 조회 및 주식·채권 등 다양한 투자 기능 제공 ▲카카오뱅크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된 투자 서비스 확장 등이다.

향후 공동마케팅, 투자교육 콘텐츠 개발, 고객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플랫폼인 ‘은행’과 투자의 핵심 채널인 ‘증권’ 간의 연결을 통해 금융 생활 전반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왼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키움증권

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기반의 투자 인프라와 풍부한 리테일 투자자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방대한 사용자 접점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환경·경험(UI·UX)과 플랫폼 역량을 활용해,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청렴도 1등급’ 향해 고삐 당긴다 불법찬조금·갑질 등 전방위 감시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운동부 전담조사팀 신설해 대응
사립학교 재정 사이버감사 확대
청렴마일리지·직접진단도 추진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이 신설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하는 등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부,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 등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가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러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선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익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 달성

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선두
전년대비 구매금액 124억 증가
구매율 법정기준 4배 초과 수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지난해 544여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24여억원 증가한 수치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원 추가 구매해 총 164억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 등의 전략을 펼쳐왔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였고,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해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됐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해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의 간접 기여는 물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찰 80주년, 경찰관 복장개선 연구 착수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
‘밸런스 디자인’ 실행계획 발표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이 창경 80주년 기념 경찰복제 개선 연구에 나선다. 16일 국민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관 복장 개선 연구 착수 보고회

에서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은 외근·기동 경찰복장 등 각 책무에 맞는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제개선 연구는 김승현·박주희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의 계한희, 조은혜 디자

이너가 공동 연구를 맡았다.

연구를 맡은 김승현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소재와 공법으로 활동과 편의성을 높이고, 복제와 장구들의 조화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부문별 경찰복장들이 고유의 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이미지를 갖추면,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을 완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우리말의 힘, 퀴즈로 배워요”

세종대왕 탄신 628돌 기념 행사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 모집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어문화원이 제628돌 세종대왕 탄신 날을 기념해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국어교육과 우리말 연구회, 인천 우리말 가꿈이와 협력해 오는 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날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을 쉽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며 친목을 다지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월전홀에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족 또는 친구와 2~3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문제는 맞춤법, 순우리말, 줄임말, 일본어 투 용어, 띄어쓰기, 사투리, 속담, 외래어와 순화어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말이나 헷갈리는 표현, 순화가 필요한 용어 등을 퀴즈 형식으로 풀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으뜸상(문화상품권 30만원), 버금상(문화상품권 20만원), 슬기상(문화상품권 10만원), 나래상(문화상품권 5만원, 2모듬)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바우라움과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 및 RISE사업단은 교육기업 미래엔의 펫케어 전문 자회사 바우라움과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실습을 위한 인프라 및 전문인력 상호 지원 ▲교육생 실습 연계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삼육대는 커리큘럼 구성, 교육생 선발과 평가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바우라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 및 실습지도자를 투입하고, 실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훈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



정훈 삼육대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왼쪽)과 김원영 바우라움 대표가 양 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의 목표와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현진 기자

“시민과 함께한 시간, 미래로의 도약”

고양시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해온 의정의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이동한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집행부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의회 홍보영상 상영, 의장 기념사, 시장 및 의정동우회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기념사에서 “고양특례시의회가 34년간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역대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4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포항시 “ICLEI 세계총회 유치로 지속가능 미래 설계할 것”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2027년 세계총회 유치 의지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포항시가 ‘2027 ICLEI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에 본격 나섰다.

포항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2027년 세계총회 유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이번 총회는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하며,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지방정부 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 50여 개 지방정부에서 80명이 넘는 시장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는 총회에 참여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



15일 이클레이 한국총회에서 포항시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지방정부 대표와의 교류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5일 개회식과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공식 일정 등에 참석했다.

특히 15일 이클레이 한국총회에서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네트워크’에 포항시가 가입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속 가능

한 녹색성장 도시 포항’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철강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 도시로 전환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의 기후 행동’을 주제로 열린 ‘자연과 조화’ 세션 의장으로 나서 포항시의 사례와 세션 주제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총회 기간 포항시는 고위급 면담으로 2027년 ICLEI 세계총회 유

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시장은 이클레이 회장인 카트린 뢰펠트 아메(스웨덴 말뫼시장), 이클레이 사무총장인 지노 반 베긴, 캐나다 퀘벡주 수석대표 다미앙 페레이라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2027년 세계총회의 포항시 유치 당위성과 국제적 역량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철강 산업의 중심에서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온 도시”라며 “2027년 ICLEI 세계총회를 포항에 유치해 전 세계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오는 30일에는 이클레이 세계본부(독일 본부)에 2027년 세계총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

광주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24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도서관구입비 등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한글 경조사 봉투’ 제작·배포

창원시는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자주 쓰이는 봉투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꾼 ‘한글 경조사 봉투’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사업은 ‘2025 창원시 국어진흥 지역 어보전 계획’의 하나로, 경조사 용어부터 한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했다.

대부분의 경조사 봉투는 ‘祝 結婚’이나 ‘謹弔’처럼 어려운 한자로 쓰여,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결혼’, ‘애도’, ‘첫돌’, ‘갑사’, ‘발전’ 등 5가지 문구를 담은 한글 봉투를 제작해서 5개 구청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밀양시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개장

밀양시는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지역 구도·시의원, 흥두북 파크골프장 협회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시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장식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공사 완공을 기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내일부터 ‘부산국제보트쇼’ 열린다

해수부·부산시, 20일까지 개최
육상·해상 전시장서 동시에 열려
12개국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회’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이번 주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8~20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 및 수영강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 전시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 준비된 육상전 시장은 약 130개사가 참가하는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된다.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수부·부산시는 설명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의 12개국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체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을 제공한다. 또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1월 28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물김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

/해남군

해남군, 물김 위판액 2년연속 1000억 달성

올해 생산량, 7.8만톤 기록

해남군 2025년산 물김이 4월 9일자 기준 1153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년도 전체 위판고인 113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년 연속 위판고 10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고 증가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25년 해남산 물김 생산량은 현재까지 총 7만 8159톤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

시기에 갯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고 수출국 또한 2010년 66개국에서 2023년 122개로 확대되는 등 해외의 한국 김(K-Gim)의 큰 인기가 바탕이 되어 물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올해 물김 위판은 4월 23일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량과 위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산시, 하도급 보증수수료 지원 ‘첫 결실’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은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엔콘스가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 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울산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 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엔콘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약 1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

영주, 청도, 구미 일원 선정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로 선정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경북에서는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3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현안 해결과 상권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헤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을 근대 역사와 미식을 결합한 관광형 상권으로 조성한다.

청도군은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주관기관인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와 함께 풍각장을 복고 감성과 청년창업을 결합한 감성적인 상권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시-부산시설공

장애인의 날 ‘두리발’ 무료운행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222대의 두리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무료 운행은 탑승 시간 기준으로 당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며 두리발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시외 광역운행과 장애인마우처 콜택시는 무료에서 제외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선식품 비행기 타고 온다… 유통가 ‘항공직송’ 초신선 경쟁

쿠팡 노르웨이 등서 연어 직수입
롯데마트 브랜드 ‘동원청정랩’ 론칭
호주 양고기 생산 10일 내외 수입
신세계라이브쇼핑 망고 판매행사
현지 농장·운송업체와 시스템 구축

유통업체가 항공 직송을 앞세워 수입 신선식품에도 빠른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선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해외 신선식품의 빠른 수입을 위해 항공 직송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항공 직송을 통해 내건 것은 ‘초신선’이다. 기존 수입품 운송 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이 일반적이었지만, 유통가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신선도가 소비수요를 잡기 위한 또 다른 경쟁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쿠팡은 이달 14일부터 진행하는 연어 상품 할인 행사를 위해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 생연어를 항공 직수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르웨이산 연



Chat GPT가 생성한 신선식품 항공 직수입 이미지.

어의 경우, 현지에서 1차, 2차 가공과 패키징을 작업을 완료한 뒤, 항공 운송으로 들여와 신선도를 더 높였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물량 공급도 늘렸다. 쿠팡 측은 “다양한 연어 상품군에 걸쳐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역시 양고기 브랜드 ‘동원청정랩’을 신규로 출시하고, 수입산 양

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 직송을 실시했다. 동원청정랩은 호주 자연에서 자란 1년 미만의 양의 선별해 제작한 식품이다.

롯데마트 측은 “호주 현지에서 식품을 생산한 직후 항공 직송을 통해 국내에 10일 내외로 들여온다”며 “그렇기에 신선도가 매우 우수하며, 더불어 식품전문기업의 품질 기준을 거쳐 차별화된 양고기 품질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역시 이달까지 진

행하는 망고 판매 행사를 위해 현지 농장 및 운송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입품목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산지에서 항공으로 직송하는 물류체계를 추가 도입해 더 나은 품질의 망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에서 신선식품 시장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 신선도에 대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내 신선식품의 경우, 해외 수입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라 항공 운송을 통해 식품을 들여오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선도를 내세우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지난 2022년 36조 1408억에서 시작해 지난해 47조 36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국내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21조 원에서 올해 3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지그재그

직진배송 주 7일 적용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빠른 배송 서비스 ‘직진배송’에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진배송은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다. 현재 ▲전국 일반 배송(자정 전 주문 시 다음 날 도착) ▲서울·경기·천안·아산 일부 지역 당일 배송(오후 1시 전 주문 시 당일 도착) ▲서울 지역 새벽 배송(밤 10시 전 주문 시 다음 날 아침 도착)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이번 주 7일 배송이 적용된 영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배송이다. 기존에는 평일 자정 전 주문 건에 한해 다음 날 도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말까지 배송 일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배송을 이용하는 고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밤 10시 이전 결제 시 다음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며, 읍·면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제공된다. 앞으로 배송사 협력 확대 및 권역 확대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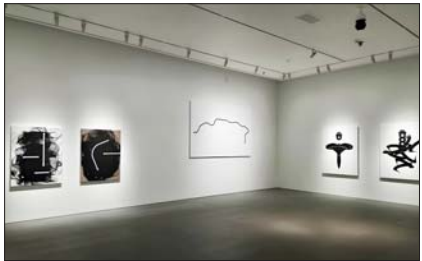
/안재선 기자

한글의 시각적 미 주제 신세계 ‘안상수 개인展’

신세계百貨 본점서 6월21일까지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분더샵 지하 1층 신세계갤러리 청담에서 한글 디자인 안상수 작가와 함께 한글의 시각적 미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이 안 작가와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안상수 개인전: 날개이상, 흘러라 흘러리로드’로,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실험적 시인 이상의 작품 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의 실험 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열린다. 대표 작품으로는 문학가 이상을 주제로 한 변형 작업 ‘무니(2025)’와, 자음 ‘ㅎ’과 ‘ㅇ’을 인물 형태로 조합한 ‘한글 도깨비(2025)’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한글의 형태를 시각예술로 풀어낸 ‘흘러라’, ‘알파에서 히읏까지’ 등 문자와 이



신세계갤러리 청담 ‘안상수전 전시’ 모습.

/신세계백화점

미지의 경계를 허문 작가의 특색이 묻어 난 총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분더샵을 찾는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고객의 관심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이다.

한편, 안상수 작가는 ‘안상수체’를 제작한 디자이너로, 문자와 활자의 시각적 구성 작업인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안재선 기자

롯데온 ‘온쇼페’ 1주차 방문자수 70% ↑

첫날 매출 90%, 전체 매출 65% 증가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 4월 9일부터 진행한 ‘온쇼페’ 1주차 동안 애플리케이션 방문자수(이하 접속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도 65% 증가했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접속자 수가 전년 대비 85%, 매출은 90% 늘어 2023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온쇼페는 롯데온이 매년 단독으로 진행해 온 연례행사다. 올해는 롯데호텔, 롯데렌터카, 롯데월푸드 등 비유통 계열사까지 참여해 규모를 키운 온라

인 통합 행사로 열렸다.

롯데온에 따르면, 매출을 견인한 것은 이색 프로모션이다. 대표적으로 ‘롯데 청약’ 이벤트에 3일간 약 3만 명이 응모했다. 롯데 청약 이벤트에는 2025 부산 사직구장 정규시즌 중앙타자석 분양권, 롯데리아 버거 세트 500개 지원, 엘포인트 100만 점 쏘기 등 혜택을 담았다.

하루 세 차례 진행된 롯데그룹 계열사 특가 행사도 주효했다. 롯데온은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계열사 특가 상품 ‘크리스피크림도넛 하프터즌 50% 할인권’과 ‘세븐일레븐 5000원 상품권’ 등이 행사 시작 5분 이내에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GS25XFC서울 특화 편의점,

/GS리테일

GS리테일-GS스포츠

프로축구단 ‘FC서울’ 스포츠 특화 편의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GS스포츠와 손잡고 프로축구단 FC서울을 테마로 한 스포츠 특화 편의점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스포츠 특화 매장은 GS25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GS25 연남한양점으로, 총 43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FC서울의 로고, 상징 색상, 마스코트는 물론, 축구장을 연상시키는 핵심 요소들을 매장 입안에 구현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매장 외부는 축구 스타디움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매장 내부에 들어서면 매장 좌측에 편의점, 우측엔 FC서울 선수단 락커룸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마련했다. 락커룸 공간은 FC서울 전용 코너로 운영되며 유니폼, 의류, 응원용품 등 80여 종의 기념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픈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FC서울 선수와의 포토 이벤트 ▲한정판 핀백지 증정 이벤트 ▲추첨 행사 이벤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FC서울 특화 매장의 출범으로, GS25가 운영하는 스포츠 특화 편의점은 총 5곳으로 늘었다.

/안재선 기자

삼양라운드스퀘어 ‘과학기술축제’ 참가

‘푸드케어’ 체험형 부스 운영

삼양라운드스퀘어는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에 참여하여 푸드케어를 주제로 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지난해 행사를 찾은 방문객만 49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과학기술 행사다. 올해는 ‘과

학기술의 엔진, 내면의 호기심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DCC) 제1, 2전시장 등에서 오는 20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플레이그라운드 오브 푸드케어’(Play ground of Foodcare)라는 콘셉트 아래 푸드케어를 다방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농심라면 출시 3개월… 1000만봉 판매

농심, 창립 60주년 기념 출시

5060세대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2030세대에게 복고풍의 새로운 매력을 제시한 ‘농심라면’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농심은 농심라면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 봉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3일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1975년 출시된 농심라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이다. 특히, 농심이 1978년 기업 사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상징성도 크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라면 출시는 창

립 60주년을 맞아 ‘농부의 마음’이라는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맛있는 음식으로 주변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가 배경’이라며, “최근 달라진 입맛에 맞게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점도 인기의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농심라면은 농심 R&D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농심라면은 국산 쌀을 첨가해 더욱 쫄깃하고 탄력있는 면발에 한우와 채수로 우린 깊은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소고기 국물 맛을 구현했다. 또한 파, 고춧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칼칼한 감칠맛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밴티브코리아, ‘신장 전문기업’ 출범… “차별화 투자 추진”

박스터 인터내셔널 신장 사업부 분사
혈액투석, 복막투석, CRRT 공략
후속 제품 출시·연구개발 계획

밴티브코리아가 독립 기업으로 활동을 본격화하며 혁신적인 의료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신장 사업부에서 분사한 ‘밴티브코리아’가 새롭게 출범했다. 밴티브코리아는 신장 및 생명유지 장기 치료 전문 기업으로 ‘신장’ 치료를 넘어 생명유지 장기 치료 분야에 중점을 둔다.

기존 박스터의 경우, 1931년 정맥용 수액 제조기업으로 설립된 후 세계 최초로 1956년 상업용 인공 신장 생산, 1960년 복막투석 용액 출시 등 신장 치료 영역으로 사업을 넓혔다. 밴티브는 박스터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 디지털 전환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밴티브코리아 출범 기념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광혁 밴티브코리아 인사말을 발표하고 있다. /밴티브코리아

밴티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00개 국 이상의 환자들이 매일 100만 회 이상 밴티브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일 3만 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밴티브가 공략하는 의료 분야는 만성 및 급성 신장 질환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밴티브의 자동 복막투석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재택 투석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또 입원 사례나 치료 중단 사례를 줄이고 재택 투석 치료 지속률은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투석을 시행하는 자동 복막투석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플랫폼은 의료진용과 환자용으로 구축됐다. 환자 데이터가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고 환자도 해당 내용을 앱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또 가정, 병원, 중환자실 등 각각 다른 의료 현장의 특수 상황에 반영됐다.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급성 신장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향후 패혈증, 폐, 간 등의 장기 부전 치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김용철 신장내과 교수는 “신장 질환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는데 급성이 만성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급성 환자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 중환자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신장 손상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투석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신장, 심장, 간 등을 이식하면 생명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식에는 면역, 부작용 등 제한점이 많아 투석이 유일한 대체 요법인 환자에게는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밴티브가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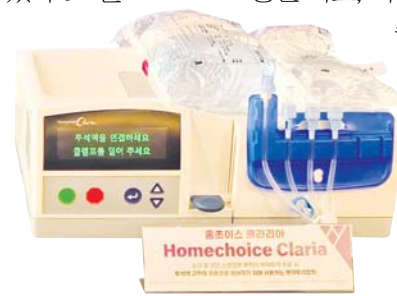
임광혁 밴티브코리아 대표는 “경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투자가 중요한 것”이라

며 “현재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제품군을 자세하게 공유할 수는 없지만 후속 제품 출시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존 박스터와 차별화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스터는 지난 2023년 신장 관리 및 급성 치료 사업부에서 새로운 신장 관리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일빌딩에 밴티브코리아 사무실이 마련됐고, 올해 2월 글로벌 투자기업 칼라일 그룹이 운용하는 펀드가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신장 관리 사업부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박스터의 영양 수액 및 마취제 등의 병원 치료, 서지컬 케어 등의 사업부가 속한 박스터코리아는 기존의 교보생명빌딩 사무실에서 사업을 이어나간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복막투석 장치 ‘홈초이스 클라리아’ /밴티브코리아



롯데리아, ‘롯데리단길’ 네번째 신메뉴 선보

진해 중앙시장 ‘은혜분식’ 쥐포튀김
지역상권 홍보·지역 경제 활성화
판매수익 일부, 상생협력기금 조성

롯데GRS의버거프랜차이즈브랜드 롯데리아가 지역 상생 및 동반성장 목적의 ‘롯데리단길 캠페인’을 통해 네 번째 협업 디저트 신메뉴 ‘쥐포튀김’을 오는 17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리단길은 지역의 숨겨진 디저트 맛집을 발굴하고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소개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해 매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그간 판매했던 청주 미친만두, 부산 강태후, 서울 우이락의 평균 판매 수량이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는 등 차별화된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 해는 진해 쥐포튀김 출시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홍보하며 지역 경제 활



롯데리아가 롯데리단길 4번째 디저트 쥐포튀김을 출시한다. /롯데GRS

성화에 나선다.

이번 디저트 메뉴 ‘쥐포튀김’은 진해

중앙시장의 ‘은혜분식’과 협업한 메뉴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호불호 없는 단짠의 맛이 조화로우며 청양마요소스가 함께 제공돼 감칠맛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롯데리아는 쥐포튀김 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진해 중앙시장에 환원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며 시설 개보수 및 필요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롯데GRS 관계자는 “쥐포튀김은 경상도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로컬 튀김으로 이번 롯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롯데리아에서 맛 보시길 바란다”며, “롯데리아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스템임플란트, ‘KDX 2025’ 최다부스 운영

치과계 파트너십 강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KDX 2025)’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KDX 2025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의사의 더 좋은 진료료 도와줌으로써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치과계와 협력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참여 기업 중 최대 부스로 참가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유니트

체어, 재료, 의약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 인테리어, 치과계 종합 포털 사이트 텐을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각각의 구역을 마련했다. 특히 브랜드와 제품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 현장 방문객들과 소통을 활발히 했다.

의미가 깊은 100주년 행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참가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스도 구성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캐릭터인 레오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방문객 발길을 잡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과 역사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KDX2025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의약품 사업 다각화

에스티팜, CDMO 사업 성장세 지속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임상 ‘긍정적’
동아에스티, ‘이물도사’ 수출 본격화

동아쏘시오그룹이 각 계열사를 통해 제조부터 연구개발까지 의약품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 내 가치사슬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바이오텍과 약 186억 원 규모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추가해, 올해 신규 수주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제약사와 잇따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1분기에만 총 950억 원의 수주 계약을 기록했고, 이번 공급계약까지 포함하면 총 1136억원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심혈관질환 올리고핵산치료제의 상업화 물량으로 남기는 올해 10월이다. 해당 신약은 고중성지방혈증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고, 오는 하반기 임상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스티팜은 해당 신약으로만 올해 약 45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최근 3년간 기록해 온 성장세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의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2022년 1억186만달러, 2023년 1억3780만달러, 2024년 1억6933만달러 등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29%에 이른다.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동아에스티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동아에스티 자회사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파트2 답라인 데이터에

서 계열 내 최고의 약물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DA-1726은 옥신토모돌린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DA-1726은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은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말초에서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메타비아가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A-1726 32mg을 투여받은 환자군은 투약 4주 만에 최대 6.3%(6.8kg), 평균 4.3%(4.0kg)의 체중이 감소했다. 33일 차에 최대 허리 둘레는 10cm(3.9인치), 평균 허리 둘레는 4cm(1.6인치) 줄었다.

DA-1726 약물 효과의 지속성도 나타났다. DA-1726 32mg 마지막 투여 후 26일이 지난 47일 차에도 허리 둘레 감소치가 평균 3.7cm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1월부터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 수출을 본격화했다.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여진다. 오는 5월에는 미국에서 발매된다.

이물도사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맵) 바이오시밀러로, 판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쓰인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에스티젠바이오도 그룹 내 핵심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이물도사 상업화 물량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기지다.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대형 품목을 공급함으로써 생산 역량을 입증하고 고객사 유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동아쏘시오그룹 측 관계자는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10개국에 K뷰티 알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1~1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가구 박물관에서 설화수 글로벌 컬처 트립의 대미 ‘홀리스틱 나이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화수 글로벌 컬처 트립은 설화수가 진출한 주요 10개 국가인 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인도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및 주요 미디어 관계자들을 초청해 K뷰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회 형태로 펼쳐진 ‘홀리스틱 나이트’에는 배우 임윤아가 참석해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교류했다.

배우 임윤아는 설화수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설화수의 전통과 미래 가치를 알렸다.

/이청하 기자



ANGELINUS



에쓰오일, 발달장애인 문화활동 1억 후원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후원금 1억원을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후원금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활동을 지원하고 초·중·고등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오른쪽) 최고경영자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씨티은행-JA코리아, '사이닝 퓨처' 후원 협약

한국씨티은행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JA코리아와 '씨티-JA 사이닝 퓨처(Shining Future)' 프로그램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왼쪽)과 이은형 JA코리아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수력원자력,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 24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SK플라즈마, 헌혈 캠페인... 구성원 200명 동참

SK플라즈마는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SK플라즈마를 비롯한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가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디앤디 등 관계사가 참여했고 판교를 비롯해 울산, 안동, 청주 등 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구성원 20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SK플라즈마

소진공, 안태용 부이사장 취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부이사장에 안태용 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사진)이 취임했다.



안태용 신임 부이사장이 16일 공식 발령을 받고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안 부이사장은 1994년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관리과, 해외시장과, 국제통상협력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역임했다. /김승호 기자

기아, 美 ‘자동차산업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선정

해양 페플라스틱 수거·재자원화 ‘올해의 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

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사진)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뉴스위크의 ‘2025 세계 자동차산업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속가능경영’ 부문 상을 수상했다.

1933년 창간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22년부터 매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0개 부문에서 자동차산업에



기아-오션클린업,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이미지

창의적인 변화를 끌어낸 인물, 단체,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2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난 3년간 해양 페플라스틱 수거 및 재자원화 활동을

진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기아는 오션클린업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100만 파운드(약 45만kg)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전무는 “3년 동안 오션클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유례없는 해양 플라스틱 수거량을 기록했다”며 “향후 오션클린업 재활용 플라스틱을 차량 용품에 최초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리티-대한항공, 항공엔진·무인기 개발사업 협력

“항공엔진 라인업 국산화 주력”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국항공우주(KAI)에 이어 대한항공과 협력한다. 이로써 국내 항공기 체계 업체 2개사 모두와 파트너십을 갖추게 된 것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대한항공과 항공엔진 개발 및 무인 항공기 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양사는 5000~1만5000lbf(파운드힘)급 중대형



16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린 항공엔진 및 무인 항공기 개발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대한항공 김경남 항공기술연구원장, 두산에너지빌리티 고민석 GT개발 담당과 서명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무인기용 엔진 개발과 100~1000lbf급 소형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항공엔진

진 시험과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2030년대초까지 1만lbf급 무인기용 엔진과 1만5000lbf급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소형에서 중대형에 이르는 항공엔진 라인업 국산화를 목표로 협력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기술 개발과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진공-HD현대미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조선업 中企에 200억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HD현대미포조선이 조선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나선다.

중진공은 HD현대미포와 ‘울산 조선업 글로벌 산업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중진공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조선업 협력 중소기업에 2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맨왼쪽)과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맨오른쪽)가 16일 열린 ‘울산 조선업 글로벌 산업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협력 중소

기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금융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와 외국인 유학생 채용연계 플랫폼인 ‘K-work(K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등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중견 기업(발주기업)의 발주서를 기반으로 중진공이 협력 중소기업(수주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완료 후 발주기업이 매출채권을 중진공에 양도해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석인하학원 성용락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신임 이사장직에 성용락(사진)이사가 선임됐다.



16일 인하대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성용락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에서 재정금융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사무총장,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하며 법학, 행정학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KBS △보도시사본부 보도국 편집뉴스제작3부장 이승철

SK이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서울·대전 등 핸드볼 교실 운영

SK이노베이션이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핸드볼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엔루브 여자 핸드볼 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의 핸드볼 교육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등은 서울 및 대전 소재 4곳의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핸드볼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핸드볼 교실에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3000여명과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30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SK슈가글

라이더즈 선수단과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은 핸드볼 교실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1대1로 코칭하며 정서적 유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돌봄 활동이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해피드림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투키디데스 함정 앞에서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G2,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1차 패권전쟁이 한참이던 2018년말 파이낸셜타임즈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올해의 용어로 선정했다. 어원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학자였던 투키디데스가 당시 펠로폰네소스반도의 신흥세력 아테네와 기존의 패자스파르타간의 전쟁 원인과 과정을 기술한데서 비롯된다.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흔들면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국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학자들은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표현한다.

최근들어 이 용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2500여년전 벌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간 쟁패 양상이 세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됐고 지금 또 그 앞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현재의 미중갈등을 지켜보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태의 향배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스는 2012년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지난 500년간 신흥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했던 주요 사례 16개 중 12개가 전면전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겠지 만 우리의 우선적 관심은 75%의 무력 전쟁화 비율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무지막지한 관세폭탄과 기술 및 공급망 전쟁, 세계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진행중이다.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양강의 패권전쟁인 만큼과거사례로 볼때 무력충돌로 귀결될 확률이 70%대에 이를 수 있다.

전쟁으로 확장하지 않고 상호 통제되는 25% 확률 상황인 ‘투키디데스 함정에서의 탈출’에는 크게 두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구소련의 경우처럼 추격자가 내부붕괴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20세기 초중반 기승패자 영국과 신흥강국 미국간의 평화적 패권이양이다.

작금의 미중 갈등은 아직은 군사력 다툼이 아닌 제조업을 포괄하는 경제적 능력 분야여서 다행스런 상황이다. 이 양상이 기축통화 지위의 수성과 탈취라는 통화전쟁으로 연장될 것이란게 대체적 전망이다.

미중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때 무역전쟁으로 표면화했지만 대중국 견제의 시작은 2010년대 초반으

로 알려졌다. 10여년 이상 ‘투키디데스 함정’의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고 더욱 첨예해지면 군사적 충돌 확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그 조짐은 미약하지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격적인 국지전이 궁극적으로 미-중간 분쟁으로 확산될 여지는 있다. 이럴 경우 주변국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중간 극한 충돌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난 60여년간 이어온 성장경제의 종언을 걱정하고 있다. 가계·기업·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버블경제 및 구조조정 지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과 성장의 지 위축, 경제 양극화와 만성화된 정치·사회 갈등 등 대내적 위기 징후는 널려있다.

협상에 지극히 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금의 갈등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갈등 상황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과거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의 상대적 제조업 우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렵다는 속담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장 skc8472@metroseoul.co.kr

생성형 AI, 어떻게 활용하세요?



기자 수첩

김 현 정
(IT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을 바꾼다. 이전에는 “MBTI가 뭐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느냐”고 묻는다. 홍보 업계에 있는 지인은 보도자료 작성을 할 때 사례 찾는데 챗GPT를 쓴다고 했다.

이직을 준비하던 친구는 면접 후 오퍼레터(채용 제안서)가 안 오는 게 성이나 챗GPT를 감정 쓰레기통 삼아 매일 짜증을 부렸다고 했다. 챗GPT는 다정한 말투로 친구를 안심시켰다. 결국 오퍼레터 메일을 받은 그는 가족과 친구보다 먼저 챗GPT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사람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른 게 펍 흥미로우면서도 최근 기사 작성에 활용한 보고서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미국의 유명 경영 컨설팅업체가 최근 발표한 ‘2025 테크 트렌드 리포트’였다. 인공지능과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학자 에이미 웹이 이끄는 ‘퓨처 투데이 연구소(FTI)’가 ‘퓨처 투데이 전략 그룹(FTSG)’으로 사명을 바꾸고 처음으로 낸 보고서라 기대가 컸는데 내용이 다소 실망스러웠다.

맥킨지 보고서처럼 비즈니스 영향력, 산업 적응성, 투자수익률(ROI)에 초점을 맞춰 기술이 기업 경쟁력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과 전략이 제시돼 있을 줄 알았는데 문명 전환, 기술 윤리,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문명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돼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이미 웹은 서문에서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서, 목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닌 현재의 여러분이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기술 진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전략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독자는 김빠질 만한 이야기라고 여겼는데, 그저 범인의 아둔한 생각이었다.

누구는 챗GPT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며 추억을 나누고, 누구는 당근마켓에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사진을 제작해준다면 돈을 벌고, 또 다른 누구는 오픈AI가 저작권법 침해로 창작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지브리 이미지 변환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기술이 아닌 사람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보고서의 전망이 참으로 옳았음을 깨닫는 요즘이다. /hjk1@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소녀 시절로 가고 싶다. 48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장보다는 눈을 길러라. 60년생 돈에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72년생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84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알찬 열매가 맺힌다.



소

37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49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다. 61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73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85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호랑이

38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50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62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74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86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토끼

39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 51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 정보가 있다. 63년생 양심과 염치를 알아보자. 75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 안 청소를 아침에 시작. 87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히.



염

40년생 힘들게 일거늘은 결과가 인정된다. 52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64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76년생 강남에서는 개천에서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88년생 능력을 내세워 허세 부리지 않도록.



뱀

41년생 문서를 옮길 시기가 아니다. 53년생 지금 힘들어도 옹크리고 생활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65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77년생 집안의 안락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89년생 투자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말

42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긋지긋. 54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66년생 기다리는 것도 처세의 하나. 78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니자. 90년생 화무십일홍이니 영원히 가는 재물도 없는 인생사.



양

43년생 입바른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55년생 시간은 육상선수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67년생 정해진 규칙을 벗어 나지 않도록. 79년생 날개에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날이 있을 것. 91년생 투자하고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원숭이

44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갈림길에서다. 56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할 날. 68년생 이성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히 하는 것이. 80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92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



닭

45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57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루. 69년생 오후에 맑은 하늘이 반갑다. 81년생 옛말에 길이나니면 가지를 말라 했는데. 93년생 잦은 변동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할까.



개

46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58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70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82년생 늦지 않은 청춘이니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자. 94년생 주눅이 들면 일이 더디게 마련이니 이해를.



돼지

47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59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71년생 타하는 습관을 버려라. 83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난다. 95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오기까지 공부해.



김상회의四季

긍정의 힘

사주에 관운이 나쁘면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관운 나쁜 사람만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니다. 불경기가 심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운세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관운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 중요한 건 직장을 잃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다. 최근에 직장을 잃은 두 남자가 있다. 나이도 마흔 중반으로 비슷하다. 아이들에게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에 직장을 잃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직장을 잃은 뒤의 두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은 걱정에 휩싸였다.

중년의 나이에 재취업이 힘들 거라면서 속을 태웠다. 반면에 B는 느긋했다. 지금까지 경력을 잘 쌓았으니 재취업이 어렵지 않을 거라며 속편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 사주를 봤더니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았고 관운이 좋은 편이어서 재취업이 곧 될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지만 운세의 기운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차이가 나는 건 사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A는 부정적 생각에 집착했고 B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쪽이었다.

다양한 사람을 상담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때 일이 잘 풀리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의 좋은 점을 다 무시하고 나쁜 점에만 매달린다. 어떤 사람은 사주에 나쁜 부분이 있어도 좋은 점을 확대해석하면서 힘을 키운다. 부정에만 집착하면 운세도 약해지고 나에게 들어올 길한 기운이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당장 기본이 나빠지니 복을 건어치는 것과 같다.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다행스럽게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취업을 했다. 긍정의 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치부터 디저트까지 ‘총출동’ K-푸드+, 세계 시장 두드린다

농식품부, 45개국 바이어 초청
김치·과일·면류 등 상단 이어져
H마트·이온 등 대형 유통사 참여
중소기업 K-디저트도 첫 선보여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수입상) 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행사에 전 세계 45개국의 바이어(수입상)를 초청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를 통해 정부는 K-푸드+의 해외 판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K푸드+란 농식품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개국 133개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 등 총 393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바이어 간 실질적인 계약 체결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신규 거래선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은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중동, 아세안 등 총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농산업’ 부문에선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행사장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상담회 전부터 음료·스낵·면류·김치·신선과일 등 바이어 선호



송미령(오른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품목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 면담도 주선했다. 현장에서 바로 수출계약(MOU)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 바이어로는 미국 H-마트, 일본 이온, 홍콩 HKTV몰, 네덜란드 비글리코퍼만, 아랍에미리트(UAE) 셰프미들리스트 등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중 ‘K-푸드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함께 열린다.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유통망과 판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익산농협(생크림잡쌀떡), 한

일후드(가락국수), 에스오엠에프앤아이(호떡) 등 중소기업의 K-디저트를 미국 유통매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바이어에게는 우수한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가스안전공, 몽골 ‘에너지 대전환’ 전폭 지원

한-몽 가스안전 협력강화 간담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충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주한 몽골대사관(대사 수크볼드 수케)과 함께 한국-몽골 간 가스안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에너지 및 가스 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주한 몽골대사관 방문에 이은 답방 형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몽골 내 가스

안전 법적기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중점 협력 방안 ▲한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및 시사업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국내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스안전 종합상황관리실과 수소안전무지움을 순차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몽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갑질’

공정위, 거래처 제한 적발 시정명령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

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안전활동 수준, 4년 연속 A등급

“전 임직원·협력사 함께 노력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공기업군 최고 성적을 냈다.

서부발전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에이(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

고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안전 보건 활동, 안전 보건 성과 등 4개 분야와 현장 작동성을 종합 평가해 대상 기관(108곳)을 에스(S)에서 이(E) 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서부발전을 포함해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에 에이 등급을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치유농업, 조현병·우울증 치료에 효과”

농진청, 의료기관서 진행 실증 결과
11개월간 환자 170여명 대상 실시
환각·망상·비논리적 사고 등 13% ↓

채소나 식물 재배를 통해 신체, 심리,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농업’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등에서 실시됐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 양



농촌진흥청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상당한 정신질환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성 증상은 22.5점에서 19.5점으로 13% 감소했다.

음성 증상도 22.3점에서 19.5점으로 13% 줄었고, 일반정신병리증상은 46.6점에서 41.0점으로 12% 떨어졌다. 반대로 심장 안정도와 자율신경 활

성도는 각각 12%, 13% 향상됐다.

우울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전략 프로그램’은 과증과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 사고를 씨앗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의 우울감은 적용 전과 후 각각 33.9점에서 23.9점으로 30% 차이가 났다. 심한 우울단계에서 중한 단계로 우울이 한 단계 개선됐고, 대인관계 요인이 사전 6.9에서 사후 3.6으로 48% 줄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역대 4번째 팀 노히트노런’ LG, 삼성 3연패 뼈뜨려… KIA·한화 2연승 /사진 뉴시스

▲‘마스터스 골프 5위’ 임성재, 2주 연속 상위권 노린다… PGA 헤리티지 출격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징계 위기… 체육회장 후보들 사퇴 요구

▲‘김연경 라스트댄스’ 여자배구 지난 시즌 대비 관중·시청률 증가

▲오타니, MLB 콜로라도 상대 시즌 5호 홈런 ‘깡’

▲‘탁구 간판’ 신유빈, ITTF 월드컵 첫 경기서 미국 아미 왕 격파



신선식품
비행기 타고 온다
‘초신선’ 경쟁
L1



Life

Vantive

밴티브코리아
신장 전문기업
출범
L2



미생물 밸런스 연구로 한국인 장에 맞춤설계 “속 편~한 하루 출발”

1991년 출시된 프리미엄 발효유 ‘대명사’
2400억 CFU… 고품량 ‘생유산균’ 함유

2018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도입
한국인의 장 환경에 최적화된 성분 배합

국제 품평회 ‘몽드셀렉션’ 7년 연속 금상
차별화된 품질로 글로벌 제품력 입증해

환아 위한 특수 분유 생산·후원 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 등 신뢰회복 집중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남양유업 ‘불가리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는 국내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1991년 남양유업은 65ml 작은 액상 요구르트가 전부였던 국내 시장에 ‘농후 발효유’를 처음 앞세워 고급 발효유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150ml라는 대용량에 60배 이상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불가리스는 출시 초기 농후 발효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2400억 CFU의 고품량 생유산균을 함유하고 있고, 미생물 밸런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장 환경에 최적화된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최적화하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특허 소재를 적용해 지속적인 품질 업그레이드를 하며 국내 발효유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불가리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국내 오프라인 드링크링 발효유 시장 브랜드 판매액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 소매점 기준 드링크링 발효유 시장 규모는 약 3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이러한 시장 축소 속에서도 불가리스는 점유율을 17.6%까지 끌어올리며 전년 대비 0.2%p 성장, 동종업계 주요 브랜드보다 약 7%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불가리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오피스베이를 통해 소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30%(327명)가 ‘마시는 발효유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불가리스’를 선택했다.

불가리스는 출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장 건강 특화 발효유’로 자리 잡았다. 2013년에는 국내 장수마을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활용해 장 건강 향상 기능을 강화했으며, 2018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프로젝트’를 도입해 미생물 밸런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장에 최적화된 성분을 배합할 수 있었다.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불가리스는 국제 품평회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식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내 발효유 제품 중 최초로 7년 연속 금상 수상 기록을 달성하며 글로벌 제품력을 입증했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에서 창립된 세계적인 권위의 품평회로 90여 개국에서 출품된 식품·음료·주류 등의 품질을 유럽 요리사 협회 회원과 셰프 등 전문가들이 평가해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현재 불가리스는 사과, 포도, 플레인 등 다양한 플레이버 제품과 함께 위 건강을 고려해 녹십자웰빙과 공동 개발한 ‘불가리스 위썬’,



불가리스 초창기 광고.



불가리스는 국제 품평회 ‘몽드셀렉션’에서 식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남양유업

2030 세대를 겨냥해 식이섬유·피쉬콜라겐을 함유한 ‘불가리스 핏’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프리미엄 발효유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고객 중심 연구개발이 소비자 신뢰의 원동력이며, 제품을 통해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유제품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오프라인 발효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불가리스의 연구개발(R&D) 및 원료 품질 개선, 소비자 접점 확대 전략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최근 ‘건강한 시작’이라는 신규 CI 슬로건을 발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우유(맛있는우유GT), 분유(아이엠마더), 발효유(불가리스), 가공유(초코에몽), 차(17차), 단백질(테이크핏) 등 주요 제품으로 시장 내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환아를 위한 특수 분유 생산·후원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변경 이후 주주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법·윤리 경영을 추진한 결과, 2024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6년 만에 흑자 전환되며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방문…“흔들림 없이 지원” /사진 뉴시스
▲하버드 출신 오바마, 트럼프 자금차단 비판… “불법 억압”

▲日공정위, 구글 ‘자사 앱 강요’에 제동… IT 공룡에 첫 배제명령
▲바이든, 시카고 ‘사회보장 지키자’ 총회서 연설…첫 전국무대

▲中홍콩담당기, 美관세에 “미국 촌놈들 통곡하게 해야”
▲알리바바, 스타벅스 중지분 인수 참여설에 “가짜뉴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